

## 과학은 무신론(无神论)인가?

위대한 과학자 보일, 줄, 파라, 다우턴, 멘델, 맥스웨어, 케니플러, 코페르니쿠스, 디칼, 칼릴 레이, 뉴턴, 아인슈타인은 조물주신(造物主神)을 절대적으로 신앙했으며 이 우주-신의 걸작을 법칙에 따라 발견하고 증실할 것을 기대하였다.

1901 년, 노벨상을 설치한 이후부터 미국에서 노벨과학상을 받은 286 명 과학자중 73%가 기독교 신도들이며 19%가 유대교신도들이었다.

이 철같은 사실앞에서 매우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 중공의 무신론선전 영향을 받아 과학연구와 신을 믿는 것은 물불 상극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신을 믿으면 미신이고 미신은 우매와 락후의 대표로 되었다.

뉴욕대학 력사계 교수 만류는 자신의 저서 <뉴턴전>에서 <근대과학은 뉴턴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默想)에서 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공의 교과서에서는 <뉴턴은 만년에 늘 종교에 물들었기에 창조할수 없었다.>라고 썼다. 기실 뉴턴은 켄브리지대학에서 공부할때부터 경건한 기독교신도였으며 신에 대한 신앙은 종신토록 변하

지 않았다. 그는 늘 신앙의 사색 속에서 과학을 생각했고 과학의 사색속에서 신앙을 생각했던 것이다.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저명한 과학자 페만은 <허다한 과학자들은 확실히 과학과 하나님을 믿었으며 이 양자는 완미하게 일치된다.>라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력대 과학의 실증방법은 종래로 신의 존재를 부정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주는 이렇게 홍대하고 번잡한데, 가없이 넓고 거시적인데로부터 무한히 미시적인데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다른 공간에 사람보다 더욱 고급적인 생명-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누가 증명할 수 있겠는가? 신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대해 매 사람들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신을 믿는 것과 과학은 전혀 모순되지 않으며 더욱 대립되지 않는다. 중공이 선전하는 “과학숭상”과 “과학발전관”은 기실 국민들더러 과학무신론을 믿으라고 강요한 것이다. 중공은 이렇게 신앙과 사상 자유를 제압하고 마음의 단속을 없애버렸기에 전 사회의 도덕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 안휘성 기업가 정존주(郑存柱)가 호금도 온가보게 드리는 공개서한 발표

안휘성 정협상무위원 왕조균이 호금도, 온가보게 드리는 공개서한을 발표한지 1 주일만에 안휘성 화식품유한회사 법인이며 동사장인 정존주가 지난 11 월 3 일 호금도, 온가보게 드리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여 현시급(县市级)의정치체제개혁을 즉시 시작할 것과 파룬궁박해를 즉시 정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일떠나 참말을 할 것을 호소했다.

#### 사진감상

#### 향촌골목에 나붙은 표어



아래 사진은 호북성향매현에서 찍은 것이다. 대륙의 향촌골목마다 나붙은 “파룬따파 좋다”고 쓴 표어를 볼수 있다.

### 시카고 추수감사절에 파룬궁은 순수한 중국문화를 선사했다.



2007 년 11 월 22 일 오전, “미국중부법륜대법학회”는 재차 유일하게 대회측의 요청을 받은 중국인들로 제 74 차 시카고 추수감사절 시위행진에 참가했다. 파룬궁학원 대오가 텔레비존 중계방송소 앞을 지날때 평론원은 <파룬대법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수한 중국문화를 가져다준데 고마움을 표한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 맞아죽은 형님과 흑형당한 동생



귀주성 반현 파룬궁학원 서광도(徐广道)는(왼쪽 사진) 2001 년 2 월, 북경에 상방갔을 때 악경들에게

게 붙잡혀 동성구 간수소에 갇혔다. 그가 단식하고 련공할 것을 요구했다고 간수소 광부소장과 감독 3 명에게 모진 매를 맞아 땅바닥에 쓰러져 피를 토하고 저녁에 사망되었다. 동성구 간수소에서 이 진상을 감추어 병들어 죽었다고 변명했다. 2001 년 1 월, 그의 제수 진옥매(陈玉梅)는 반현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지금까지 구류소에 갇혀있으며 그의 동생 서계화(徐启华)는 류리결식하다가 2007 년 9 월에 귀양공안특무에게 랍치되어 지금까지 흑형과 시달림을 받고 있다.



### 연변 박해 소식

■ 지난 10 월 30 일 오전 10 시경 파룬궁학원 장경향(张庆香)은 연길시행정봉사대청에서 신분증을 수속하다가 비법적으로 악경들에게 붙잡혀 이란파출소에 갇혔다가 12 월 2 일, 국보대대로 호송되었다.

■ 지난 11 월 말, 연길시파룬궁학원 4 명이 삼합진에서 진상을 알리고 차를 타고 돌아오다 한 학원과 전추진(战秋珍) 이 삼합진 파출소 악경들에게 붙잡혔다. 한 학원은 악경들의 사악한 폭행에서 뛰쳐 나오고 전추진은 지금 룡정시간수소에 갇혀 흑형을 받고 있다.

■ 연길시파룬궁학원 류희매(刘喜梅)는 지난 5 월 12 일 오후 3 시에 진상을 알리다가 연길시북산가파출소 악경들에게 랍치되었다.

## “9 평”발표 3 주년을 맞이하여 퇴당, 단, 대성명



2007 년 11 월 19 일은 <9 평공산당>발표 3 주년이다. 3 퇴인수는 이미 2860 만명에 달한다. 아래에 대기원 퇴당사이트에 발표된 3 퇴성명 몇편을 골라 싣는다. (전호의 계속)

### 퇴당하면 평안할수 있다.

나는 사령의 부체인 중공 악당 사고조직에 잘못 들었다. 이 사고조직은 겉과 안이 다르고 흑백을 전도하며 거짓말로 민중을 속인다. 당내에 부패하고 사악한 우두머리는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찌뽀런을 신앙하는 민중을 잔인무도하게 박해하여 하늘에 사무치는 큰 죄를 저질렀기에 하늘은 중공을 멸망시켜려 한다. 나는 중공악당 및 일체 부속조직에서 퇴출함을 정중히 성명한다. 짐승의 도장을 철저히 지워버리고 평안을 찾고자 한다.

안휘성회남시 수령

### 하늘의 계시와 경고

나는 <9 평공산당>을 읽어보고 공산당의 본질은 폭력에 거짓말을 합친 것이고 사고에 강패조직을 합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늘의 뜻인 공산당의 멸망은 곧 눈앞에 다가왔다. 하늘의 계시와 경고를 알게 된 우리는 중공의 순장품이 되지 않으며 공산악당과 계선을 나누고자 한다. 그리하여 모든 공산당, 청년단, 소선대에서 퇴출할 것을 정중히 성명하는 바이다.

중국대륙 계걸,소영 등



정의의 목소리 집체번호:

<파룬궁은 죄가 없다>

2007 년 4 월 27 일 오전 8 시경 석가장중급법원에서 파룬궁수련자 왕박(王博)안건 제 2 심판을 개정하였다. 6 명 북경대리변호사 리화평(李和平), 러웅병(黎雄兵), 장립휘(张立辉), 리순장(李顺章), 등표(滕彪), 오광위(郭宏威)가 법정에서 날카롭게 헌법에 비추어 신앙자유와 인권유호의 각도에서 헌법과 립법, 사법순서, 법률사실의 각계 측면으로부터 왕박안건 3 명 당사자를 위해 아주 정채로운 무죄변호를 했다. 이것은 1999 년 7 월 중공이 파룬궁을 진압한이후 중국대륙변호사가 처음으로 집체신분으로 파룬궁 신앙자를 위해 무죄변호를 한 것이다.

### 퇴당, 단, 대 용사들



가정교회 수령 서영해(徐永海)는 2006 년 5 월 26 일에 소선대, 공청단에서 퇴출할 것을 정중히 성명했다.



함을 공개성명했다.

원 북경 대학 교무실 주임 만요구(万耀球)는 2007 년 5 월 3 일에 퇴단함을 공개성명했다.



중경시 작가 고만구(顾万久)는 2007 년 3 월 22 일에 정중히 퇴당성명을 발표했다.